

## 치매 서사의 신빙성 없는 화자와 이야기 정체성\*

- 『참을 수 없는 비밀』, 『살인자의 기억법』을 중심으로

김 은 정\*\*

###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살인자의 기억법』의 신빙성 없는 화자의 이야기 정체성 |
| 2.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신빙성 없는 화자의 이야기 정체성 | 1) 실제와 망상의 시간 착종과 서술의 신빙성         |
| 1) 기억 시간 착종과 서술의 신뢰성                | 2) 신빙성 없는 화자의 공소시효 없는 죄책감         |
| 2) 신빙성 없는 화자의 예고 없는 불행 불안감 극복 노력    | 4. 나오며                            |

### 국문초록

본 논의는 박완서의 『참을 수 없는 비밀』과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을 중심으로 초점화자의 ‘신빙성 없음’이 각각의 치매 서사에서 구현되는 양상을 살피고 신빙성 없는 화자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내포작가의 역할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두 작품 모두 신빙성 없는 화자인 치매 환자의 기억이 소멸해 가는 중심에 시간의 착종이 존재한다.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초점화자 하영의 서사에서, 시간 착종은 치매 노인인 하영이 생각하는 시간(기억 시간)과 실제의 시간 사이에서 일어난다. 『살인자의 기억법』의 시간 착종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나’ 김병수가 실제와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서사 구조 속에서 치매 화자는 자신이 어떤 인격이나 태도를 가진 존재인지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이 한 서술을 자신마저 확신할 수 없는 혼란의 상태로 서사가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독자는 애초부터 서사를 이끌 수 없는 치매 화자에 의한 서술을 기획한 ‘내포작가’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신빙성 없는 화자의 정체성 복구는 결국 내포작가의 몫이며, 그 자체가 신빙성 없는 화자를 내세운 내포 작가의 기획이다.

두 작품의 초점화자 하영과 김병수의 이야기 정체성은 각각 ‘예고 없는 불행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한 노력’과 ‘공소시효 없는 죄책감’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신빙성 없는 치매 환자들의 정체성 역시 공동 저자 역할을 하는 내포작가의 기획을 통해서 형성된다.

주제어 : 신빙성 없는 화자, 치매 서사, 이야기 정체성, 시간 착종, 내포작가

## 1. 들어가며

소설을 비롯한 서사에서 서술자(화자)는 이야기를 중개하는 핵심 장치이다. 독자는 소설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 화자의 중개를 피할 수 없으며 이야기의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화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독자의 해석은 화자의 신빙성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신빙성 있는 화자의 경우 독자는 그의 보고, 해석, 평가에 기대어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간에 감춰진, 화자 뒤편의 또 다른 의미 작용을 전경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자의 신빙성 문제는 독자의 관심을 스토리 층위에서 담론 층위로 확장시키고 이를 주제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의미 구성을 요구한다.<sup>1)</sup>

서술자(화자)의 신빙성 문제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웨인 부스이다. 화자의 신빙성에 대한 그의 구도는 화자와 내포 작가라는 축으로 이루어진다. 즉, 화자가 ‘내포 작가의 규범을 대변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면 신빙성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인데, 화자의 신빙성 여부와 그 효과는 내포 작가와 화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화자의 신빙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소설 텍스트의 전체 효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후 화자의 신빙성은 서사 연구의 중심 쟁점으로 부각한다.<sup>2)</sup>

채트만은 신빙성 없는 화자의 특성으로 탐욕, 정신질환, 우둔함, 심리적, 도덕적 문제, 순진무구함 등을 들고 있다.<sup>3)</sup> 또한 리먼-케넌은 신빙성 없음의 기준으로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는데, 화자의 제한된 지식, 그의 개인적 연루 관계, 그의 문제성이 있는 가치 기준 등이 그것이다.<sup>4)</sup>

1) 정진석,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2011, 628쪽.

2) 부스의 모델에 대한 인지서사학의 비판은 부스가 믿을 수 없는 서술에서 독자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최우선으로 두었던 ‘내포작가’라는 규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다. 부스가 창안한 내포작가의 개념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어왔으며, 믿을 수 없는 서술 논쟁에서도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믿을 수 없는 서술의 경우, 내포 작가의 개념을 제거하게 되면 중요한 특질을 놓치게 된다. (박진,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이론적 쟁점과 신빙성 판단 과정의 윤리적 효과』, 『현대문학이론연구』 75, 2018, 139-140쪽.)

3)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166-167쪽.

4)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2003, 148쪽.

이것은 신빙성 없는 서술의 원인이 되는 인물의 지적, 심리적, 도덕적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5)</sup> 리건은 신빙성 없는 화자를 '도덕과 상식, 인간의 품위에 대한 그의 철학을 수용할 수 없는 화자'로 정의하면서 여기에 속하는 작중 인물로 광인(狂人), 순진한 자, 위선자, 성도착자,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 악한, 거짓말쟁이, 사기꾼, 광대 등을 꼽는다.<sup>6)</sup>

신빙성 없는 화자에 관한 이론들<sup>7)</sup>을 참고로 하였을 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인 박완서의 『참을 수 없는 비밀』,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신빙성 없는 화자에 의해 서술된 작품이다. 이들 작품의 초점 화자는 치매 환자이기 때문이다.<sup>8)</sup>

5) 정현숙, 『'신빙성 없음'의 수사학과 소설교육』,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47쪽.

6) 정진석,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2011, 632쪽. 재인용.

7) 신빙성 없는 서술자 이론의 가장 큰 논쟁점인 '내포작가'의 문제에 대해 본고의 논점은 "부스와 채트만 이론의 핵심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서술자의 존재마저도 내포작가가 기획한 특별한 전략의 일부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뜻 내포작가의 규범에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술자의 발화나 행위조차도 실은 내포작가가 의도한, 독자에게 전달되기를 위한 특별한 서술의 효과임을 그들의 이론은 보여준다."(공성수, 『정보인지 전략으로서의 서사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현대문학이론연구』 77, 2019, 12쪽)의 견해와 같이 한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내포작가의 '기획'이라는 용어 역시 공성수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이다.

8) 본 논문에서의 서술자(화자)의 개념은 발의 초점화 유형을 중심으로 한다. 발의 초점화 유형을 외적 초점화와 내적 초점화로 나누고 초점 주체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외적 초점화에서 초점 주체는 이야기 세계 밖의 화자이고 내적 초점화에서 초점 주체는 이야기 세계 속의 인물이다.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185-200쪽.) 그런 점에서 본고의 대상이 되는 작품인 『참을 수 없는 비밀』은 외적 초점화의 작품으로, 하영은 EF에서 CF(인물 초점화자)로 옮겨가는 초점화자이며, 『살인자의 기억법』은 내적 초점화 작품으로 '나' 김병수가 '초점화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작품의 초점화자는 다소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고의 '초점화자'라는 용어는 이러한 구분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본고의 논의가 두 작품의 '초점화자'의 개념을 분류하는 것

특히 이 두 작품과 같은 치매 서사는 스토리 차원의 신빙성 없음의 특징뿐 아니라, 서사라는 장르 자체가 기억에 의존한 과거 재현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담론 존재 자체의 신빙성 없음까지 내포한다.

본 논의는 전체 서사가 진행된 이후 초점화자의 신빙성 없음이 드러나는 박완서의 『참을 수 없는 비밀』과 서사의 첫 시작부터 초점화자의 신빙성 없음을 기본 자질로 하여 시작되는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을 중심으로 이들 작품에서 보여주는 화자의 ‘신빙성 없음’이 각각의 스토리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구현된 치매 환자가 서술한 신빙성 없는 서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내포작가의 기획<sup>9)</sup>을 파악하고자 한다.

『참을 수 없는 비밀』과 『살인자의 기억법』과 같이 신빙성 없는 화자가 치매 환자라는 점은 여타의 신빙성 없는 화자와는 상이한 특징들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신빙성 없는 화자의 의미를 파악한다. 특히 본고는 치매 환자의 기억이 소멸해 가는 중심에 시간의 착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시간 착종이 서사의 신빙성 없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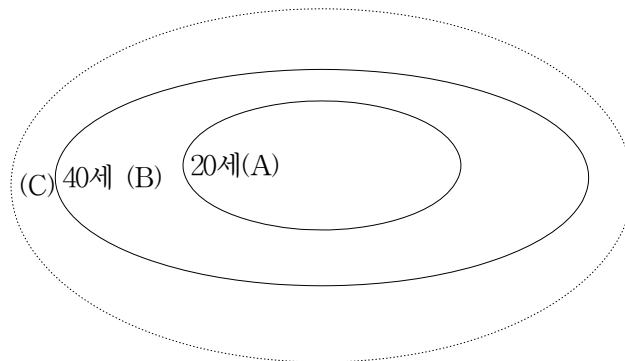
이러한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을 잃어가는 질병’인 치매를 앓고 있는 화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까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치매 화자의 이야기 정체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또한 내포작가의 ‘기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편의상 ‘초점화자’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9) 기획(intent)이란 의도(intention)라기보다는 발화되지 않은 함축적 메시지까지 포괄하는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가리키는데 모든 의미가 텍스트 활동의 산물이고 그 활동이 늘 행위자를 전제로 한다면 “내포 저자로서의 텍스트 원리나 동인(agent)”을 상정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박진, 앞의 논문, 140쪽 재인용)

## 2.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신빙성 없는 화자의 이야기 정체성

### 1) 기억 시간 착종과 서술의 신뢰성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시간 구조는 크게 세 개의 층위<sup>10)</sup>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의 주요 시간은 초점화자 하영이 마흔인 어느 날이다.

이번엔 달라. 달라져야 해. 하영은 술발을 휘청휘청 걸어나오면서 다 짐을 했다. 올해 마흔이 아닌가. 하영은 반듯한 색종이를 귀맷취 집듯이 자신의 생애를 반절로 접는다. 스무살에 인생이 바뀌었고 다시 스무 살이 된다. 넘지도 처지지도 않고 딱 맞아떨어지는 건 색종이가 아니라 불행의 반복이었다.(117쪽.)<sup>11)</sup>

이렇게 서술 시점을 정확하게 ‘마흔’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독자는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시간을 하영이 마흔이 되어 혼자 여행을 떠나 온 어느 날로 믿는다.

10) 도표의 (C)부분 점선은 서사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시간대를 표기한 것이다.

11) 박완서, 「참을 수 없는 비밀」,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1999, 이하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인용 페이지만 표기한다.

하영은 올해 마흔이다. 대학생이 된 건 스무살 때였다.(108쪽.)

서사의 시간은 하영이 40세가 된 (B)의 시간이 현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시작된다. 그리고 서사의 진행은 하영이 20세였던 (A) 시간의 일을 기억하게 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강릉 해변가에서 하얀 운동화를 신은 채 자살한 청년을 보는 장면이다.

하얀 운동화를 보자 그녀는 온몸으로 한번 진저리를 치고 사람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는 시체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한 손에 하나씩 운동화 신은 발을 옮겨줘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하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략)그녀는 하얀 운동화를 옮겨준 채 고꾸라지면서 가슴으로 안았다. 복받치는 울음에 자신을 맡겼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94-95쪽.)

이렇게 하영이 낯선 시체에 대해 보인 반응은 그녀가 가진 ‘비밀’이 ‘익사’와 ‘운동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정도를 암시한다. 하영이 옮겨주고 울었던 하얀 운동화의 주인이 그 동네 청년 춘식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알았을 때, 하영은 마치 발작이 그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초점화자 하영의 내면을 알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은 그 장소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에게나 서사를 읽어가는 독자에게 뜬금없는 행동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서사가 진행되면서 (B시간에서 A시간으로의 회상 방향으로) 하영이 스무 살이었던 20년 전에 첫사랑 세준이 여울목 웅덩이에서 익사했고, 그때 그를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시도하면서 주검과 첫 입맞춤을 했다는 것. 즉 첫 키스를 죽은 자와 했다는 것이 하영에게 ‘참을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런 의미에서 하영의 뜬금없는 통곡은 20년 전의 세준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이 드러난다. 여기까지 독자는 40대의 초점화자 하영의 이야기를 믿으면서 서사의 진행을

따라가게 된다.

40세의 하영이 강릉 여행지에서 겪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은 허난설헌의 생가 사랑마루에서 잠이 든 사건이다. 아무 근심 없는 깊은 낮잠을 자고 난 후, 허난설헌 생가가 결국 역적질로 손이 끊긴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가 쫓기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언제나 불행한 무엇과 연루돼 있다  
는 불안감으로부터였다. 실로 오래간만에 취한 완벽한 휴식이 왜 하필  
절손된 집 마루에서였을까?(108쪽.)

절손된 집 마루에서의 낮잠을 이토록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해하는 하영의 태도 역시 스무 살에 겪었던 세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하영의 불안감은 익사 사건 후 세준의 모친에게 들었던 ‘내 아들 잡아먹고, 남의 집 대 끊어놓고, 너 혼자 얼마나 잘사나, 두고 보자. 어디 두고 보자. 재수없는 년, 재수없는 년’이라는 악담으로 인한 것이다. 하영의 불안감이 이 악담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독자가 인식하는 순간, 독자는 마흔 살의 하영의 이야기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참을 수 없는 비밀』은 40세의 하영이 펼치는 트라우마 극복기로 읽힌다.<sup>12)</sup> 물론 이때의 서사 시간은 하영이 40세일 때의 시간이며, 이 시간은 신빙성 있는 시간으로 인식된다.

신호가 두 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드릴 테니 하실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생판 처음 들어보는 차갑고 기품 있는 목소리다.

“뉘시유? 응. 당신 누구요? 누가 남의 집에……”

하영은 놀라 수화기를 떨어뜨리며 뒤로 한걸음 물러난다. 손끝 발끝

12) 김미영, 『치매 소설에 투영된 치매자의 주체적인 삶』, 『어문연구』 98, 2018, 326쪽.



이 차갑게 얼어들어온다. 모든 것이 아득하니 무감각해진다. 다만 심장으로 부터 모세혈관까지 빙하처럼 차가운 피가 흐르는걸, 마치 순환기 내과병원 같은데 걸려 있는 인체도의 파란 정맥 보듯 또렷하게 느낀다. (118쪽.)

서사의 마지막은 여전히 40세의 하영(B)이 스스로가 만든 불행한 미래에 대한 징크스에 얽매이는 것을 끊고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결심을 하며, 호텔방으로 돌아와 집으로 전화를 거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독자는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초점화자 하영에 대한 신빙성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독자는 ‘하영은 올해 마흔이다’라는 문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전체 서사의 시간을 하영이 마흔이라는 시간에 맞추어서 하영의 행동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서사의 마지막인 이 장면에서 하영은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동응답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놀라서 튀어나오는 말투 역시 노인의 것이라는 점에서 하영이 현재 속해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가 모호해진다.

여기에서 독자는 하영이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자신이 현재 ‘마흔 살’이라고 믿고 있는 치매 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서술의 곳곳에 “그녀는 늙은이처럼 멍그적대며 일어나 창가로 갔다.”(93쪽), “저렇게 나이 많은 여자하고?”(95쪽), “하영의 테이블에서 의자를 집어가면서 탐색하는 듯 경멸하는 듯 묘한 눈길을 보냈다”(99쪽)처럼 하영 자신은 자신을 마흔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의 인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암시들이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하영이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은 (C)의 시간이다. 서사의 중심인 (B)시간은 하영이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여 만들어낸 세계의 시간, 혹은 기억이 고착되어 있는 시간이다. 서사에는 하영이 현재 존재하는 (C)의 시간에 대한 언급이나 (B)시간 이후 하영의 삶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서사에 제시된 에피소드(친구의 결혼식, 남편과의 강릉

여행, 지속적인 나의 가출) 역시 (A)시간과 (B)시간 사이의 일이다.

실제 하영이 속해 있는 시간은 마흔 이후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기억 속에서 지워진 시간이다. 그런 점에서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서술 시간은 궁극적으로 신빙성을 잃게 된다.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시간 착종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공간은 마흔 살 하영의 여행지인 강릉이다. 서사는 여행지 강릉에서 호텔 -> 해변가 -> 횃집 -> 허난설헌 생가로 이어지며 진행된다.

눈에 들어온 한 무더기의 빛깔은 그녀의 의식 속에서 곧장 계집애들의 철딱서니라곤 하나도 없는 자자한 웃음소리로 바뀌었다. 어찌자고, 어찌자고 ... 그녀의 증얼거림엔 호흡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뜻은 없었다. 그녀는 철딱서니 없음이 싫었다. 그 대책없음은 싫다기보다는 무섭다는 쪽이 맞았다.(93쪽.) (호텔 -> 해변가로)<sup>13)</sup>

이런저런 생각을 굴리느라, 다시 한번 허난설헌 생각을 찾아보리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한눈에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어느 고가 앞에 와 있었다.(104쪽.) (횃집 -> 허난설헌 생가로)

하영은 누가 붙잡기라도 하는 것처럼 방향도 정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했다. 그녀가 쫓기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언제나 불행한 무엇과 연루돼 있다는 불안감으로부터였다.(107쪽.) (허난설헌 생가 -> 출발으로)

이렇게 각 공간으로의 이동 이유와 이동 장소에서 보여주는 초점화자 하영의 행동은 개연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흔 살의 하영이 경험하고 있는 여행지에서의 하루라는 설정이 하영의 망상 속에서만 이루어진 신빙성 없는 서술이라면, 하영의 의식 속에 있는 ‘강릉’이라는 여행지 내의 공간 역시 그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치매 노인의 배회 행동은 빈번한 치매 증상의 하나이다. 치매 노인은

13) 밑줄은 필자 주. 개연성이 부족한 표현에 대한 강조 주.

공간적 기억 손상이 있어 길 찾는 능력이 감소되면서 배회 행위를 일으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치매 노인의 배회 행위를 부적절한 혹은 맹목적 보행으로 정의되었으나, 최근 그 정의가 확대되어 ‘공간 시간 보행 배회를 일으키는 자극 혹은 충동의 네 가지 영역에 의해 형성 되는 행위’로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sup>14)</sup>

『참을 수 없는 비밀』의 하영의 경우 역시 ‘강릉’이라는 여행지에서 보낸 사건들이 하영의 의식 공간 속에서만 이루어진 ‘환각적 행위’라고 했을 때, 하영의 공간 이동은 서사 속의 다른 인물들에게는 치매 노인의 배회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하영의 배회는 스무 살에 겪었던 ‘세준의 익사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하영의 의식 속에 있는 ‘강릉’이라는 공간은 ‘익사’와 ‘절손’과 관련된 기억 환기의 공간이다.

하영이 충격을 받은 것은 오히려 대관령을 넘고 나서였다. 눈의 무게를 못 이겨 짹 짹 생솔가지가 찢어져 내릴 정도의 엄청난 폭설이 대관령을 넘자마자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이 지나온 하루 전과 다른 것은 한겨울의 풍경이 별거벗은 채 펼쳐지고 있었다.(103쪽.)

굽이굽이 험하다고는 하나 고개 하나 상관으로 전혀 다른 기후는 하영에게 달라지고 싶든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희망과 곤잘 연결 되곤 했다. 하영이 바라는 건 변화 따위가 아니었다. 변화처럼 점진적이지 않은 획기적인 달라짐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104쪽.)

14) 배회의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배회가 비록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는 개인의 과거 생활사와 경험, 성격 행동 특성과 습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기전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nyder et al.,1978; Cohen-Mansfield et al.,1991;Thomas, 염은이, 『치매 노인의 배회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11-12쪽 재인용)

치매 노인인 하영이 자신을 마흔 살의 하영이라 생각하며 배회하는 공간인 강릉은 또한 하영에게 ‘완전히 바뀌는 삶에 대한 갈구’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대관령’이라는 고개를 넘어감으로써 완전히 바뀌는 기후와 풍경처럼 ‘스무 살’, ‘마흔 살’의 아귀가 딱 맞는 일생의 고개를 넘어 서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불행에 대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의 공간이 바로 강릉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치매 노인인 하영이 현재 배회하고 있는 공간인 강릉은 하영이 현재 치매 상태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자신의 생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신빙성 없는 화자의 예고 없는 불행 불안감 극복 노력

서사에서 서술자(화자)의 부정적인 인격과 태도가 드러나고 다른 등장인물과의 이해관계 등에서 문제가 있고 제시된 정보가 상치될 경우, 독자가 이를 인지하는 순간 화자가 한 모든 이야기는 의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화자를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 말한다.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초점화자 하영의 경우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영의 의식 공간이 마흔 살의 강릉 여행지에 있지만, 하영 외의 다른 등장인물이 인식하는 하영은 ‘마흔’의 하영이 아니다. 또한 하영의 망상 속에서 이동하는 공간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는 노인의 ‘배회 행위’로 보일 뿐이다.

치매 서사의 신빙성 없는 화자의 문제에 있어서 여타의 신빙성 없는 화자 서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여타의 신빙성 없는 화자의 서사는 화자의 신빙성 문제가 화자 자체의 부정적인 인격이나 태도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인격이나 태도는 존재한다. 비록 그 인격이나 태도가 내포작가가 ‘기획’하고 있는 것과 상치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존재하며 독자에 의해 추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치매 서사의 화자의 경우, 화자 자신이 자기가 어떤 인격이나 태도를 가진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궁극적으

로는 자신이 서술한 서사에 대해 자신마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이 치매 서사의 신빙성 없는 화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결국 치매 서사의 화자가 망각하게 되는 것은 인물인 화자 자신이라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망각, 공간에 대한 망각 이후의 인물에 대한 망각<sup>15)</sup>이 화자 자신에 해당하게 될 때 화자가 느끼는 혼란은 자신의 생애 전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화자의 혼란은 또한 독자에게 치매 환자는 애초부터 서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화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신빙성 없는 치매 화자에 의한 서사를 기획한 ‘내포 작가’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한다.

생판 처음 들어보는 차갑고 기품 있는 목소리다.

“뉘시유? 응. 당신 누구요? 누가 남의 집에……”

하영은 놀라 수화기를 떨어뜨리며 뒤로 한걸음 물러난다. 손끝 발끝이 차갑게 얼어들어온다.(118쪽.)

『참을 수 없는 비밀』의 마지막은 이렇게 초점화자 하영이 자신의 목소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마무리로 인해 독자는 이 작품이 치매 서사 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영에 의해 서술된 모든 이야기가 치매 노인의 망상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하는 기다림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것이 속에서 차오르면 하영은 거의 숨이 막힐 것 같아지곤 했다. 기다리다 못해, 아니 참다못해 차라리 선수를 치고 말지 싶어졌다. 발작적으로 안 살 거야, 이런 집에서 숨막혀 못 살아, 이렇게 주기적으로 생트집을 잡아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고 집을 나오는 게 그녀의 상투적인 선수치기였다.(117쪽.)

15) 일반적으로 치매 증상에서 망각이 진행되는 순서는 시간의 망각, 공간의 망각, 인물의 망각의 순서로 망각이 진행된다.

서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 하영의 마흔 살 이후의 삶도 이 ‘상투적인 선수치기’의 반경 속에 있다. 세준 모친의 악담으로 촉발된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는 저주는 결국 초점화자 하영이 자신을 ‘재수 없는 년’으로 설정하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재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생애를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재수 없는 일이 발생할까 봐 미리 ‘사소한 시비’ 등으로 액땀을 하려는 심리가 하영의 일생을 지배하는 심리였다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은 트라우마는 의식이 일시적으로 망각한 무의식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계기가 주어지면 반드시 귀환하는 것임을 증명했다.<sup>16)</sup> ‘치매’는 바로 이 일정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억부터 잃어가는 치매 환자의 경우,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망각하고 싶은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17)</sup>

『참을 수 없는 비밀』의 경우 망각하고 싶은 과거는 이중의 시간으로 감싸져 있다. 첫 번째 시간이 하영에게 근본적인 ‘참을 수 없는 비밀’이 된 세준의 죽음의 시간이라면, 두 번째 시간은 지금껏 마음 속으로만 억눌러 왔던 ‘절손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고조된 마흔 살의 강릉 여행지에서 ‘허난설현 생가에서의 낮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준의 죽음 이후 세준의 모친이 했던 저주의 핵심이 ‘절손’이라면, 이 ‘절손’에 대한 불안감은 하영의 이십 년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적인 정서일 것이다. 이런 하영이 마흔이 되었을 때, 우연히 잠든 곳이 ‘절손된 집’이라는 것은 하영이 내포하고 있던 불안감을 증폭시킨 사건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치매 상태인 현재 하영의 망상이 만들어낸 시간과 장소는 모두 하영의 ‘절손에 대한 불안감’을 공통항으로 하고 있다.<sup>18)</sup>

16) 고봉준, 『서사, 기억과 망각의 갈림길 -박민규, 김영하, 성석제의 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53호, 2004, 77쪽.

17) 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3, 2013, 325쪽.

18) 마흔 살은 지금 하영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 하영이 만들어낸 세계의, 혹은 기억

리콥르(Ricoeur)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설명하는가’에 따라 인물의 정체성 형성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sup>19)</sup>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란 하나의 해석이며, 이러한 자기에 대한 해석이 보다 특권적인 매개를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이야기라는 것이다.<sup>20)</sup>

이야기는 삶의 총체적 연관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니며, 사회 속에서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훌륭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즉 훌륭한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지향성을 지닌 각자의 ‘자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sup>21)</sup>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문학의 관점에서 이 ‘타자화된 인격체’의 정체성은 중요한 과제이고, 그런 점에서 망각으로 인해 정체성이 훼손된 치매 환자인 화자가 자아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게 해 주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로 작동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을 수 없는 비밀』과 같이 정체성을 상실한 신빙성 없는 화자의 정체성의 복구 문제는 결국 ‘내포작가’의 몫이며, 그 자체가 신빙성 없는 화자를 내세운 ‘내포작가’의 기획이다.

리콥르는 또한 좋은 삶을 추구하려는 자기 존중의 능력이 타자를 매개로 하여 실현되는 배려의 윤리를 통해 인격의 존엄성을 논한다. 그에 게서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자체 목적을 지닌 인격체뿐만 아니라, 배아나 태아 그리고 무의식 환자나 식물인간 등 타자화된 인격체 등을 포괄한다.<sup>22)</sup> 그런 점에서 결국 『참을 수 없는 비

---

이 살고 있거나 고착되어 있는 시간이다. 오이 겐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치매자의 세계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세계로 그것은 뇌가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김미영, 앞의 논문, 327쪽, 재인용)

19) 폴 리콥르,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자신』, 동문선, 2006, 160-164쪽.

20) 배근혜, 『타하르 벤 젤룬 『모래아이』의 정체성-폴 리콥르의 이야기 정체성에 근거하여』, 연세대학교 불문학과 석사논문, 2015, 44-45쪽.

21) 윤성우, 『폴 리콥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200-205쪽.

22) 공병혜, 『리콥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현상학과 현대철학』 24, 2005, 63쪽.

밀』에 대한 내포작가의 기획은 신빙성 없는 화자인 치매 환자 하영의 이야기 정체성의 형성이다.<sup>23)</sup>

예고된 사고의 위협에 대해선 전혀 불안감을 못 느끼는 게 하영의 성미였다. 하영이 두려워하는 건 경고 없이 오는 불행이었다. 모든 불행은 경고 없이 오게 돼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무사안일한 시간이 계속될 때 그녀는 속에서 뭐가 차올라 숨통을 짓누르는 것 같아지곤 했다.(103쪽.)

결국 서술자 하영의 삶은 스무 살에 겪었던 예고 없는 불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점철된 생이다. 그러나 자아정체성이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자기동일성의 논리라면, 트라우마는 언제나 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리하여 언제나 부정하거나 회피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다.<sup>24)</sup>

이런 점에서 서술자 하영의 기억이 머무는 곳이 트라우마 극복을 다짐하는 ‘강릉’이라는 설정은 내포작가가 나타내고자 한 하영의 이야기 정체성은 바로 ‘불행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참을 수 없는 비밀』이 결국 신빙성 없는 치매 화자에 의한 서술이라는 점이 드러났을 때, 독자가 느끼는 어리둥절함과 함께 치매 노인인 하

23) 인물의 자아정체성은 그와 삶을 함께 한 가족이나 친구 등에 의해 구성된 이야기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환자와 삶의 역사를 함께 엮어가고 이야기의 공동의 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환자의 삶의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것이다.(공병혜, 앞의 논문, 79쪽.) 공병혜의 실질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치매 서사에서 가족에 의한 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과 관련한 논의(김은정, 『조경란 치매 서사에 나타난 이야기 정체성』, 『한국문학논총』 85, 2020, 344-350쪽.)에서 치매 환자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 저자의 역할은 ‘조카’(조경란의 『달걀』)나 ‘동생’(조경란의 『달팽이에게』)이 하고 있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작품에는 이러한 공동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본고의 논의 중심은 이런 공동저자의 역할이 내포작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차원에서 『참을 수 없는 비밀』의 내포작가는 초점화자 하영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공동의 저자라고 볼 수 있다.

24) 고봉준, 앞의 논문, 81쪽.



영에 대한 연민은 바로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한 초점화자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했었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바로 ‘내포작가’의 기획에 의해 완성된 하영의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 3. 『살인자의 기억법』의 신빙성 없는 화자<sup>25)</sup>와 이야기 정체성

#### 1) 실제와 망상의 시간 착종과 서술의 신빙성

뉘닝은 서술자(화자)의 신빙성 문제가 현대 서사 이론의 중심 쟁점으로 부각한 이유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흥미로운 이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서술자의 신빙성이 기술과 해석, 미학과 윤리학의 접점에 놓이면서 이에 대한 결정이 해석적 탐구에 큰 영향을 미

25) 살인자의 기억법에 나타나는 서술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논자들이 취하는 해석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류보선은 살인자의 기억법의 서술자를 “전혀 믿을 수 없는” 서술자로 간주한다. 그 이유를 ‘연쇄살인범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초인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점과 ‘나’의 진술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 즉 상상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류보선, 『수치심과 죄책감 사이 혹은 우리시대의 윤리 -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문학동네, 2013)』, 『문학동네』 20권 제4호(통권 77호), 2-3면 참조) 최혜령 역시 ‘나’가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자질과 ‘자기 과시적이며 인정욕구가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살인자의 기억법의 서술을 신뢰할 수 없는 서술로 파악한다. (최혜령, 『서사전략으로서 오독(誤讀)의 효과와 의의 -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오독(誤讀)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4, 2020, 477-479면 참조). 한편 정혜경은 이 소설의 서술자를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서술자”로 파악한다. 그 이유는 ‘죄책감조차 갖지 않는 살인자’라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 ‘고백 형태의 서술’이 주는 신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정혜경, 『소설의 영화화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살인자의 기억법』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7, 2018, 264면 참조)

치며, 셋째, 신빙성 없는 서술자가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면서 과거의 정의를 일신할 필요가 제기되며, 넷째, 허구 서사뿐만 아니라 장르, 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서사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살인자의 기억법』은 뉘닝이 제기한 서술자(화자)의 신빙성 문제에 대한 큰 흥밋거리를 제공하며 허구 서사뿐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되어 치매 환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sup>27)</sup>

『살인자의 기억법』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자인 ‘나’가 처음부터 자신을 일흔 살의 알츠하이머환자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나의 이름은 김병수, 올해 일흔이 되었다’(27쪽)<sup>28)</sup>

화자 ‘나’는 자신을 살인을 멈춘 지 25년이 지난 ‘은퇴한 연쇄 살인범’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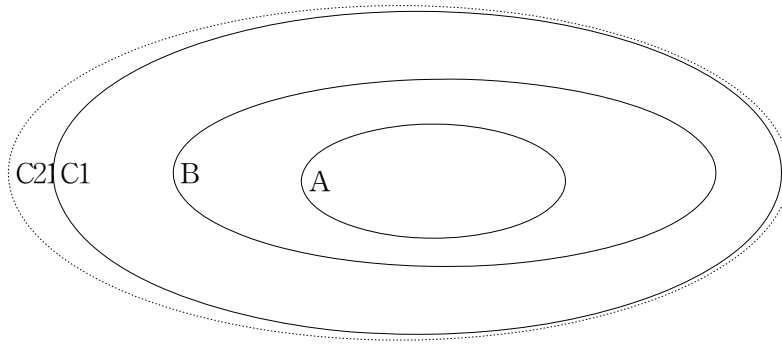
내 인생은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A)아버지를 죽이기 전까지의 유년. (B)살인자로 살아온 청년기와 장년기. (C)살인 없이 살아온 평온한 삶. 은희는 내 인생 제 3기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부적 같은 것 아니었을까. 아침에 눈을 떠 은희를 볼 수 있다면, 나는 희생자를 찾아 헤메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었다.(54쪽.)<sup>29)</sup>

26) 정진석, 앞의 논문, 628쪽 재인용.

27) 대표적인 논문으로 정혜경, 『소설의 영화화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살인자의 기억법』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7, 2018이 있다. 이 논문은 그 논의를 김영하의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과 원신연 감독의 극장판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과 감독판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28)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 문학동네, 2013, 이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인용 페이지만 표기한다.

29) 도표의 (C2)부분 점선은 서사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후에 밝혀지는 부분)을 표기한 것이다. 망상과 실제의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C1)과



이렇게 볼 때 『살인자의 기억법』에 제시된 각각의 시기에 대한 언급은 아래와 같이 본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A) 내 최초의 기억: 마당 한가운데 놓인 대야에 들어앉아 물을 튕기고 있다. 아마도 나는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대야에 몸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 세 살이나 그 아래였을 것이다. 어떤 여자의 얼굴이 내 얼굴과 닿을 듯이 가까운 곳에 있다. 어머니겠지.(97쪽.)

(B) 열여섯 살에 시작해서 마흔다섯까지 계속했다. (중략) 그러나 나는 오직 살인만 생각했다. 이 세상과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죽이고, 달아나서, 숨었다. 다시 죽이고, 달아나서, 숨었다.(32쪽.)

(C1) 죽음은 두렵지 않다. 망각도 막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닐 것이다. 지금의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세가 있다 한들 그게 어떻게 나일 수 있으랴. 그러므로 상관하지 않는다. 요즘 내가 마음에 두는 것은 딱 하나뿐이다. 은혜가 살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 모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 생의 업, 그리고 연.(28쪽.)

『살인자의 기억법』의 전체 서사는 (C1)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1)영역의 서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C2)는 겹쳐진다.

연쇄 살인을 멈춘 나는 수의사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현재 키우고 있는 딸 김은희는 그의 부모를 죽이고, 아이만은 죽이지 말아 달라는 은희 엄마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내가 키운 딸이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살인의 유전자’를 상실하고 김은희를 키우며 살던 중 나는 알츠하이머로 인해 과거의 기억과 미래 기억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 출현한 것을 알게 된다. ‘나’는 그 연쇄살인범이 우연히 사고로 만난 박주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리고 박주태가 딸 은희를 노리고 접근해온다고 생각한다. ‘나’는 딸 은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살인을 준비한다. 그리고 드디어 박주태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 의해 제시된 모든 서사가 ‘나’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망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씨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김씨가 평소 재가 요양보호사로 치매 노인을 돌봐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김씨가 방문하던 가구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김병수(70)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 안팎을 수색, 살해된 김씨의 사체와 김씨의 사체에 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신체 일부를 수거했다.(135쪽.)

객관적인 신문 보도 형식으로 제기되는 사실의 전말은 김병수가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김은희’의 실체는 치매 환자인 김병수를 돌보기 위해 파견되었던 요양보호사이며, 김병수가 연쇄살인범이라 생각하며 살해하겠다고 결심한 박주태는 김병수를 쫓는 형사라는 것이다.

(C1)의 영역 전반의 이야기가 망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독자가 느끼는 충격은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서사의 시작에서 자신이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고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서사를 그대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30) 이 점에 관해서 정혜경은 “‘나’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고백’의 형태로 전개되므로,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서술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

그리고 독자는 (C1)영역의 서사가 신빙성 없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B)영역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된다. 그러나 (B)영역의 모든 서사는 다 실제하는 것으로 밝혀진다.<sup>31)</sup> 이것은 현재의 기억부터 사라지며, 과거의 기억들은 더 생생해지는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인 리보의 범칙<sup>32)</sup>을 서사가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1)영역과 (C2)영역의 실제와 망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나, (C1)영역의 망상이 성립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B)영역 서술의 신빙성보다 (B)영역의 시간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인 (C1)의 영역으로 가는 접점에 ‘은희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래전에 시내 문화센터에서 일하던 여자와 그 남편을 죽였소. 그들에게 아이가 있었는지 좀 알아봐주세요.”

형사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적대시하지 않는 것 같다.(중략)

“세 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같이 살해됐습니다. 둔기로.”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다 빙긋이 웃었다.

“재밌는 우연이네. 그때 죽은 아이 이름도 은희예요.”(142-143쪽.)

고 있다. (정혜경, 앞의 논문, 264쪽.)

31) 형사를 불러 이제 집 마당은 그만 파고 대나무숲을 파보라고 일렀다. 형사가 긴장된 얼굴로 나갔다. 그때부터는 TV에 대숲이 나오기 시작했다. 언제나 영롱한 햇빛의 노래를 들려주던 나의 대숲이. “이건 뭐, 그냥 공동묘지네. 공동묘지야.” 방수포에 싸인 유골들이 줄줄이 산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 하나가 말했다. (『살인자의 기억법』, 136쪽.)

32) 알츠하이머의 주된 증상인 기억 장애 증상 중 치매 환자들은 수십 년 전에 겪은 일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억력의 감퇴 증상은 오랜 과거의 기억보다 최근 기억이 먼저 사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단기기억은 측두엽 안쪽에 위치한 해마에 주로 저장되며, 장기기억은 대뇌피질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다. (양현덕, 『치매(인지증) 이야기』 브레인와이즈, 44쪽 참고) 알츠하이머는 주로 해마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김병수가 앓고 있는 질병인 알츠하이머 증상을 개연성 있게 제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화자 김병수에 의해 제시된 자신의 인생을 나누는 기준점은 각각 (A)에서 (B)영역으로 넘어갈 때, ‘아버지의 죽음’이 그리고 (B)영역에서 (C1)영역으로 넘어갈 때 ‘은희의 죽음’이 있다. 이것은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화자 김병수가 살인 후 낯선 감정을 느낀 두 사건이다.

연쇄살인범으로서의 삶에서 은퇴하고, 수의사로 일하며 가끔 문화센터의 시창작 교실에 참가하는 김병수의 일상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즉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망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김병수에게 온 ‘김은희’라는 이름의 요양보호사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은희’라는 이름으로 인해 화자 김병수는 망각 속에 묻어두었던 ‘은희 살해’를 자신이 은희를 키워왔다는 망상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은희 어머니는 울며 사정했었다.

“알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빈말을 일삼는 놈들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잊지 않기 위해 여기 다시 쓴다.(26쪽.)

수치심과 죄책감 : 수치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것이다. 죄책감은 기준이 타인에게, 자기 바깥에 있다. 남부끄럽다는 것. 죄책감은 있으나 수치는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타인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수치는 느끼지만 죄책감은 없다. 타인의 시선이나 단죄는 원래부터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심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죽이게 된 사람도 있다. -나 같은 인간이 더 위험하지.(105쪽.)

치매 환자 김병수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인 (C1)영역에서 화자 김병수가 제시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빈말은 하지 않는 존재이며, 자신이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존재’이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줄 자식(은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sup>33)</sup>

하지만 김병수가 자신에게 투영한 이러한 이미지가 사실은 자신이 만든 망상임이 드러났다면, 김병수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 역시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의 김병수는 은희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 살 된 은희를 죽여 버린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는 ‘빈말을 일삼는 놈’이다.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자면 김병수는 자신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없다고 서술한다. 특히 죄책감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폄하한다.<sup>34)</sup>

여기에서 볼 때 화자 김병수의 감정은 자신이 서술하는 것과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화자 나(김병수)에게 남아 있는 가장 강한 감정이 바로 ‘죄책감’이라는 것이다.

평행우주로 보내진 것 같다. 이 우주에서 박주태는 경찰이고 안형사는 없고 나는 은희의 살해범이다.(133쪽.)

이렇게 신빙성 없는 화자인 나(김병수)에 의해 서술되었던 스토리가 모두 망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스토리는 종료된다. 그러나 스토리의 종료 후에도 담화는 계속되는데, 이것이 초점화자 나(김병수)의 망상과 실제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한 내포작가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33) 이 점에 대해서 최혜령은 김병수가 자신에게 투영하는 범인 혹은 탐정의 상(狀)이 추리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며, 이러한 이미지의 제시가 독자를 탐정소설이라는 오독으로 이끄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혜령, 앞의 논문, 493쪽.)

34) 죄책감은 본질적으로 약한 감정이다. 공포나 분노, 질투 같은 게 강한 감정이다. 공포와 분노 속에서는 잠이 안 온다.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인물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는 웃는다. 인생도 모르는 작자들이 어디서 약을 팔고 있다.(『살인자의 기억법』, 44쪽.)

## 2) 신빙성 없는 화자의 공소시효 없는 죄책감

‘기억’은 정체성과 관련하여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다. 기억이란 한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현재와 관련짓는 정신적 행위이자 시간 경험의 하나이다.<sup>35)</sup> 그런 의미에서 치매 서사의 핵심인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자신의 존재 증명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빙성 없는 화자에 의해 서술된 서사 중 치매 서사가 가진 독특함은 치매 환자인 화자가 자신이 어떤 인격이나 태도를 가진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자신이 한 서술에 대해 자신마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망각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작품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제시하는 치매에 대한 정의는 이와는 좀 다르다.

메모지에 ‘미래 기억’이라는 말이 뜬금없이 적혀 있다. (중략) ‘미래 기억’은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한다는 뜻이었다. 치매 환자가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과거 기억을 상실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미래 기억을 못하면 나는 영원히 현재에만 머무르게 된다. 과거와 미래가 없다면 현재는 무슨 의미일까.(93쪽.)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현재에만 머무르게 되는 질병. 다시 말하면 과거의 한 부분(죄책감과 관련된)이 지속적으로 현재화되는 질병이 바로 ‘치매’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쇄 살인범이었던 초점화자 김병수에게 치매는 ‘신이 결정한 벌’<sup>36)</sup>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 환자이며 은퇴한 연쇄살인범인 김병수는 앞서도 밝혔듯이 자신

35) 고봉준, 앞의 논문, 77쪽.

36) 최근에 저지른 일은 기억하지 못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예전 일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자백하고, 최근에 저지른 일은 처벌 받을까봐 털어놓지 않는 것 아니냐고. 사람들은 모른다. 바로 지금 내가 처벌받고 있다는 것을. 신은 이미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살인자의 기억법』, 144쪽.)



이 저질렀던 수많은 살인 중 단 두 가지 살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은희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초점화자 김병수의 이야기는 사실 수치심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이다.<sup>37)</sup>

세월이 흐른다. 재판이 진행된다. (중략) 나는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쉬지 않고 말했고 사람들은 받아적었다. 아버지를 죽인 일만 빼고 모든 것을 말했다.(143쪽.)

요즘 꿈에 아버지가 자주 나온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앓은뱅이 책상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다. 내 시집이다. 아버지는 입에 왕겨를 가득 머금은 채 나를 보며 웃고 있다.(40쪽.)

꿈에 아버지를 보았다. 별거벗고 목욕을 가고 있었다. 아버지, 왜 다 벗고 목욕을 가세요? 내가 묻자 아버지는 말한다. 어차피 벗을 것 아니냐. 미리 벗고 가는 게 편하다.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았다. 그래도 뭔가 이상해 아버지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옷을 입고 목욕을 하러 가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린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나? (119-120쪽.)

이렇게 나에게 남은 최초의 죄책감이자 최후의 죄책감은 아버지 살해의 죄책감이다. 그리고 초점화자인 ‘나’ 김병수가 가장 갈구하는 시간, 즉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은 A의 시간<sup>38)</sup>이다. 이 시간은 그 어떤 죄책감도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37) 이 부분에 대해 류보선은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 그것을 수치심으로 전도시켜 가까스로 살아간 한 인물의 비극”으로 풀이한다. 수시로 아내와 자식들을 학대하는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와 누이와 힘을 합쳐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의 죄를 저지른 아들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저 밑에 묻어 두고 오로지 수치심을 느낀다는 주문을 외운다고 볼 수 있다. (류보선, 앞의 논문, 4-5쪽.)

38) 앞 장에서 언급한 서술 시간에 대한 도표 참고.

오이디푸스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거기 있을 것이다. 닮았지만 좌우가 뒤집혀 있다. 그는 나와 같은 살인자였지만 자기가 죽인 사람이 아버지인지도 몰랐고 나중엔 그 행위마저도 잊어버렸다. 그러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각하면서 자멸한다.(중략) 오이디푸스는 무지에서 망각으로, 망각에서 파멸로 진행했다. 나는 정확히 그 반대다. 파멸에서 망각으로, 망각에서 무지로, 순수한 무지의 상태로 이행할 것이다.(129쪽.)

이렇게 ‘나’는 망각을 통해 죄책감이 없는 시간, 즉 무지의 시간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현재화된 과거’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천형을 받고 있는 김병수는 완전한 망각의 시간으로 갈 수가 없다. 그때 초점화자나(김병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마무리는 그의 혼란을 공(空)의 세계로 미끌어져 들어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미지근한 물속을 둥둥 부유하고 있다. 고요하고 안온하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공 쏙 속으로 미풍이 불어온다. 나는 거기에서 한없이 헤엄을 친다. 아무리 헤엄을 쳐도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다. 소리도 진동도 없는 이 세계가 점점 작아진다. 한없이 작아진다. 그리하여 하나의 점이 된다. 우주의 먼지가 된다. 아니 그것조차 사라진다.(149쪽.)

앞서 언급한 『살인자의 기억법』의 서사가 이루어지는 C1영역(김병수의 망상)과, C2(실제 상황)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세계를 무화시키는 방법밖엔 없다. 그리고 그 무화는 사실상 초점화자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위의 서술은 C1영역(김병수의 망상)과 C2(실제 상황)로 제시된 모든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의 서술이며, 이것은 ‘내포작가’에 의해 이루어진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무서운 건 악이 아니오.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145쪽.)

이 서술은 초점화자 김병수가 자신의 망상이 드러난 순간에 “문득. 졌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무엇에 진 걸까. 그걸 모르겠다. 졌다는 느낌만 든다.”라고 한 의문에 대해, 즉 ‘무엇’에 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주제이기도 한 이 서술 역시 내포작가에 의해 이루어진 서술로 볼 수 있다. 연쇄살인범이 저지른 수많은 살인. 그 살인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의 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치매 환자인 김병수의 입으로 말하게 함<sup>39)</sup>으로써 김병수라는 화자의 이야기 정체성을 ‘공소시효 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포작가의 기획이다.

#### 4. 나오며

지금까지 박완서의 『참을 수 없는 비밀』과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을 중심으로 이들 작품에서 보여주는 초점화자의 ‘신빙성 없음’이 각각의 스토리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치매 서사를 통해 내포작가가 공동의 저자가 되어 형성하는 신빙성 없는 화자의 이야기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 두 작품과 같이 신빙성 없는 화자가 치매 환자라는 점은 여타의 신빙성 없는 화자에 의한 서사와는 상이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치매 환자인 화자가 자신이 어떤 인격이나 태도를 가진 존재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서술에 대해 자신마저 확신할 수 없는 혼란의 상태로 서사가 마무리되고, 이러한 화자의 혼란을 통

39) 지금까지의 서술이 김병수에 의해 기록된 자기 생각이라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자신을 찾아와 악을 이해하겠다는 기자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다.

해 독자는 애초부터 서사를 이끌 수 없는 치매 화자에 의한 서술을 기획한 ‘내포작가’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참을 수 없는 비밀』과 『살인자의 기억법』의 두 작품 모두 신빙성 없는 화자인 치매 환자의 기억이 소멸해 가는 중심에 시간의 착종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본 논의는 이러한 시간 착종이 서사의 신빙성 없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자신이 마흔 살이라고 생각하며 서사를 진행시키는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초점화자 하영의 서사에서, 시간 착종은 치매 노인인 하영이 생각하는 시간과 실제의 시간 사이에서 일어났다. 하영이 생각하는 마흔 살의 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는 이 작품을 초점화자 하영의 트라우마 극복기로 읽게 한다. 그러나 작품의 마지막에 초점화자 하영이 치매 노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초점화자 하영은 자신의 기억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살인자의 기억법』은 연쇄살인범인 ‘나’ 김병수가 자신이 죽인 세 살 짜리 아이 김은희를 25년간 자신의 딸로 키우고 있다는 망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살인자의 기억법』의 시간 착종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실제와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신빙성 없는 화자의 서사인 이 작품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망상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망상과 실제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리콥르(Ricoeur)는 ‘누구에 대한 무엇을 설명하는가’에 따라 인물의 정체성 형성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란 하나의 해석이며, 이러한 자기에 대한 해석이 보다 특권적인 매개를 찾게 되는 곳이 바로 이야기라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문학의 관점에서 이 ‘타자화된 인격체’의 정체

성은 중요한 과제이고, 그런 점에서 망각으로 인해 정체성이 훼손된 치매 환자인 초점화자의 자아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게 해주는가 하는 윤리적인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로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의는 정체성을 상실한 신빙성 없는 화자의 정체성의 복구 문제는 결국 ‘내포 작가’의 몫이며, 그 자체가 신빙성 없는 화자를 내세운 ‘내포 작가’의 기획이라고 파악했다.

『참을 수 없는 비밀』의 초점화자 하영의 이야기 정체성을 ‘예고 없는 불행에 대한 불안감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살인자의 기억법』의 초점화자 ‘나’ 김병수의 이야기 정체성을 ‘공소시효가 없는 죄책감’으로 파악한 본 논의는 내포작가의 기획을 이들 신빙성 없는 치매 화자들의 이야기 정체성 형성의 공동저자 역할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박완서, 『참을 수 없는 비밀』, 『너무도 쓸쓸한 당신』, 창작과비평사, 1999.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 문학동네, 2013.

### <논저>

- 고봉준, 『서사, 기억과 망각의 갈림길 -박민규. 김영하. 성석제의 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53호, 2004, 77-94쪽.  
공병혜, 『리콤피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현상학과 현대철학』 24, 2005, 61-89쪽.  
공성수, 『정보인지 전략으로서의 서사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현대문학이론연구』 77, 2019, 05-30쪽.  
김미영, 『치매 소설에 투영된 치매자의 주체적인 삶』, 『어문연구』 98, 2018, 313-339쪽.  
김은정, 『현대소설에 나타난 ‘치매’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63, 2013, 313-340쪽.  
\_\_\_\_\_, 『조경란 치매 서사에 나타난 이야기 정체성』, 『한국문학논총』 85, 2020, 321-356쪽.  
노대원, 『사이코패스 소설의 신경과학과 서사 윤리』, 『영주어문』 47, 2021, 337-361쪽.  
류보선, 『수치심과 죄책감 사이 혹은 우리시대의 윤리 -김영하, 『살인자의 기억법』(문학동네, 2013)』, 『문학동네』 77, 1-5쪽.  
박진, 『믿을 수 없는 서술의 이론적 쟁점과 신빙성 판단 과정의 윤리적 효과』, 『현대문학이론연구』 75, 2018. 139-140쪽.  
배근혜, 『타하르 벤 젤룬 『모래아이』의 정체성-폴 리콤피르의 이야기 정

- 체성에 근거하여』, 연세대학교 불문학과 석사논문, 2015.
- 염은이, 『치매 노인의 배회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윤성우, 『폴 리콥르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 이혜경, 『망각의 서사와 올로(YOLO)적 삶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9(2), 2018. 109-128쪽.
- 정진석, 『소설 이해로서 서술자의 신빙성 평가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2011, 627-667쪽.
- 정현숙, 『신빙성 없음』의 수사학과 소설교육』,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1.
- \_\_\_\_\_, 『신빙성 없는 서술과 내적 초점화』, 『현대문학이론연구』 49, 2012. 355-375쪽.
- 정혜경, 『소설의 영화화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살인자의 기억법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67, 2018, 257-289쪽.
- 조희경, 『서술자의 '신빙성'을 통해 본 김원일의 작가의식』, 『우리문학연구』 20, 2006, 345-370쪽.
- 최병우, 『서술자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현대소설연구』 19, 2003, 107-128쪽.
- 최혜령, 『서사전략으로서 오독(誤讀)의 효과와 의의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나타나는 독자의 오독(誤讀)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24, 2020, 467-503쪽.
-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 미케 발, 한용환·강덕화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 오이 겐, 안상현 역,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윤출판, 2013.
- 웨인 부스,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2003.
- 폴 리콥르,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자신』, 동문선, 2006

<Abstract>

Unreliable Narrator and Narrative Identity in  
Dementia Narrative  
- focused on 『Unbearable Secret』 and 『Memoir of a  
murderer』

Kim, Eun-J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pects of the focalizer's 'unreliability' in each dementia narratives of the novels 『*Unbearable Secrets*』 by Park Wan-suh and 『*Memoir of a murderer*』 by Kim Young-ha, and identify the role of the implied author to form the narrative identity of the unreliable narrator.

In both works, the confusion of time exists at the center of the disappearance of the memory of dementia patients, who are unreliable speakers. In the narrative of Ha-yeong, the focalizer of 『*Unbearable Secrets*』, the confusion of time occurs between the time she, an elderly dementia patient, thinks and the actual time. The confusion of time in 『*Memoir of a murderer*』 appears as the aspect of being unable to distinguish between reality and delusion in the same time zone.

In this narrative structure, the dementia speakers are unaware of what kind of personality or attitude they have. The narrative ends in a state of confusion in which even she or he is not sure of her or his own narrative, so the reader re-recognizes the existence of the who

---

\* Kyungnam University.



designed the narrative by dementia speakers who cannot lead the narrative from the off. In this regard, the restoration of the identity of the unreliable narrator, who has lost her or his identity is ultimately up to the implied author, and it is the planning of him who put forward the unreliable narrator.

The narrative identities of Ha-yeong and Kim Byeong-su, the focus speakers of the two works, can be understood as 'efforts to overcome anxiety about unwarmed misfortune' and 'guilty conscience without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se identity of the incredible dementia patient is also formed through the planning of the implied author.

Key Words: unreliable narrator, dementia narrative, narrative identity, confusion of time, implied author

■ 논문접수 : 2021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21년 8월 15일

■ 게재확정 : 2021년 8월 19일

